

올림픽 사상 최다 금메달 보인다

대회 13일째 金12 銀5 銅6 '전체 4위' 태권도·복싱 종목서 본격 메달 레이스

태극 전사들이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사상 최다 금메달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다.

한국의 역대 최다 금메달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달성한 13개이다. '마린보이' 박태환이 수영 자유형 400m에서 역사적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 야구 대표팀은 9전 전승의 행진 속에 남자 구기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 주었다. 또 태권도(4개), 양궁(2개), 역도(2개) 그리고 유도와 사격,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이 나왔다.

베이징에서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던 한국은 금메달 10개 이상으로 종합 순위 10위안에 들겠다는 '10·10'의 목표를 런던 올림픽을 맞았다.

태권도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은 양궁과 사격에서 3개씩, 펜싱과 유도가 2개, 레슬링과 체조에서 1개씩 금메달을 수확했다.

7월 28일(이하 현지시각) 남자 사격 10m 권총에서 한국팀에 첫 금을 선물한 진중오는 지난 5일에는 남자 50m 권총에서 한국이 목표했던 10번째 금메달까지 명중시켰다.

전통적인 예자종목 양궁과 이번 올림픽을 통해 국민 스포츠로 떠오른 펜싱의 선전으로 10개의 금메달을 채운 한국의 금메달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광주체고 출신의 양학선이 6일 체조 남자 도마에서 금빛 연기를 펼치며 한국 체조의 '노 골드' 한을 풀어주었다. 레슬링 그레이코로

만형 66kg급의 김현우도 7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레슬링 금메달의 목마름을 해소해주었다.

한국의 금메달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흥 출신의 차동민(남자 80kg급 이상)을 필두로 태권전사들이 금빛 발차기로 중국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각오이다.

수에는 예상치 못했던 승진보가 이어지면서 '깜짝' 금소식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복싱 남자 라이트급(60kg) 한순철이 4강에 진출했고, '죽음의 조'에서 탈출한 여자 핸드볼과 여자 배구가 나란히 4강 남보를 알렸다.

한편 금메달 수 기준 종합 순위에서 한국은 1988년 서울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역대 최고인 종합 4위에 올랐다. 13개의 금메달을 따냈던 2008년 베이징에서는 종합순위 7위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국가대표 박현선-박현하 자매가 7일(현지시각) 오후 영국 런던 올림픽 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싱크로 듀엣 결승에서 멋진 연기를 하고 있다. 한국싱크로가 올림픽 결승에서 연기를 펼친 것은 2000년 시드니 대회의 장윤경-유니미 이후 12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연합뉴스

싱크로 12년만의 결승 진출 "금메달보다 값져요"

자매 국가대표인 박현선(24)-현하(23·이상 K-water)가 한국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이하 싱크로)에 12년 만의 올림픽 결승 진출이라는 큰 선물을 남기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박현선과 박현하는 7일 오후(현지시각) 올림픽파크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싱크로 듀엣 자유종목(프리 루틴) 결승에서 87.250점을 받아 규정종목(테크니컬 루틴·86.700점)을 합쳐 174.160점으로 전체 12개조 중 12위로 마쳤다.

비록 최하위에 그쳤지만 경기 후 박현선은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 값져요. 너무 기쁘다"고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한국싱크로가 12개 팀이 겨루는 올림픽 결승 무대에 나서는 것은 2000년 시드니 대회의 장윤경-유니미 조 이후 12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등록선수가 100명도 채 안 되고, 실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40명 안팎인 한국싱크로의 현실을 고려하면 대단한 경사다.

한국싱크로는 200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 1,2위를 다퉈왔지만 이후 오랜 침체에 빠졌다. 한국싱크로에 부활의 희망을 안긴 것은 박현선-현하 자매였다. 박현선은 2003년, 현하는 2004년 솔로 부문에서 대표로 뽑혔고 2009년 초 함께 태극마크를 달았다.

2009년 일본오펜에서 5위, 2010년 5월 중국오펜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 꾸준한 국제 대회에 참가하며 2010 광주우 아시안게임에

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아쉽지만 이제 박현선-현하의 연기를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런던올림픽 결승은 자매의 은퇴 무대다.

싱크로 선수로는 적지 않은 나이인데다가 올림픽을 위해 지난 2년간 휴학한 이들은 학업을 계속하려고 이번 대회를 끝으로 선수 생활을 접기로 했다.

체육특기생이 아닌 일반 전형을 통해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에 입학한 박현선은 올해 4학년 1학기로 복학한다.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다니는 박현하는 1학년 2학기로 복학할 예정이다. 이들은 잠시 물을 떠나지만 훗날 지도자가 돼 한국싱크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생각이 있다. /연합뉴스

역도 최종량급 전상균 아쉬운 4위

한국 역도 최종량급의 강자 전상균(31·조폐공사)이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전상균은 7일(현지시각) 역셀던던 사우스아레나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역도 105kg이상급에서 인상 190kg, 용상 246kg,

합계 436kg을 들어 4위에 머물렀다.

전상균은 인상에서의 부진을 만회하지 못해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이로써 한국 역도는 이번 대회에서 메달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다.

인상 1차 시기에서 190kg을 든 전상균은 2,3차 시기에서 200kg을 들어 올리지 못해 7

위로 밀려났다.

용상에서는 2차 시기에 246kg을 든 뒤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동메달을 노리고 259kg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성공하지 못했다. 용상에서는 2위에 해당했지만 인상에서 벌어진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이란의 베흐다드 살리코르다시아비바가 합계 455kg을 들어 금메달을 따고, 역시 이란의 사자드 아누시라비니가 합계 449kg으로 은메달을 나눠가졌다. 동메달은 전상균보다 12kg이 더 많은 합계 448kg을 든 투슬란 알베고프(러시아)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노메달' 자존심 구긴 한국 역도

역도 강국의 명성을 떨치던 한국이 런던 올림픽에서 노메달에 그쳐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한국은 7일(현지시각)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남녀 15체급 가운데 남자 6체급, 여자 4체급 등 총 10체급에 선수를 출전시켰으나 메달을 따지 못했다. 올림픽에서 한국이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것은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출전권을 한도인 10개까지 획득해 역도 강국임을 자부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남자 77kg급의 사재혁, 여자 최종량급의 장미란이 금메달, 여자 53kg급의 윤진희가 은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

맨몸의 한계를 보여주는 기초종목에서 메달을 여러 개 획득했다는 점에서 한국 체육의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런던올림픽에서 역도도 노메달에 그친 것은 적지 않은 수모로 비친다.

그러나 경기 내용을 살펴볼 때 약재가 쏟아져 쏟아져 나갔을 뿐 실력의 후퇴는 아니라는 게 대한역도연맹의 항변이다.

연맹 관계자는 "입상권에 들 수 있는 선수들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경기 당일의 순간적으로 컨디션이 흐트러져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역도는 갑자기 과몰 같은 천재가 나타나 몇 년 만에 세계무대를 휩쓰는 일이 거의 없는 종목이다.

기초적인 운동능력이 탁월한 선수가 10년 가까이 사생활을 반납한 채 기술을 연마하고 힘을 늘려야 올림픽에서 정상 노릴 만한 기량을 갖춘다는 게 역도 지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세대교체에 실패하면 침체가 십수 년씩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 역도라는 말이다.

한국 역도는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2004년 아테네 대회까지 12년 동안 메달을 따지 못했고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2008년 베이징올림픽까지 16년 동안 금메달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한국 역도가 세대교체의 실패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와 비슷한 양상을 다시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신아람 "1초... 시간이 그렇게 안 갈지 몰랐어요"

"고양이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올림픽"

■ 런던올림픽 말말말... 2012 런던올림픽, 4년간의 혼을 쏟아낸 선수들의 잊지 못할 말을 모아봤다.

▲시간이 그렇게 안 갈지 몰랐어요 = 신아람이 펜싱 여자 에페 준결승에서 광성 시비 끝에 브리타 하이데만(독일)에게 진 뒤, 이날 마지막 1초가 흐르지 않아 하이데만의 공격을 세 번 막아내고도 네 번째를 허용해 지고 말았다.

▲올림픽 메달만으로도 만족한다 = 박태환이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93으로 쑨양(중국)과 공동 은메달을 수상한 후, 박태환은 "세계적인 선수인 쑨양과 시상대에 함께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좋다"면서 "올림픽 메달을 질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원수님 사랑 덕에 실력 향상됐다 = 남자역도 56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북한의 엄운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제1위원장에게 공을 돌리며,

▲나는 남들과는 다른 신발을 신고 있을 뿐이다 = '블레이드 러너'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남아공)가 어릴 적 형인 칼과 함께 운동

할 때마다 어머니는 "칼, 가서 신발 신으렴. 오스카, 너는 의족 신어야지"라고 했다. 이때문에 오스카는 자신이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내 메달을 보고 칼과 총 대신 운동화를 잡는다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이다 = 4일 육상 남자 경보 20km에서 과테말라의 올림픽 사상 첫 메달을 따낸 에릭 바론도가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며,

▲고양이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올림픽 무대다 = 여자 비치발리볼 세계 챔피언인 폴리나 펠리베르타(브라질)가 올림픽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여성의 신체는 완벽, 그 자체다. 모두가 여성의 몸을 보기를 좋아한다. 특히 운동할 때 말이다 = 비치발리볼 호주 국가대표인 쿼이 비키니 유니폼을 옹호하며 한 달, 국제 배구연맹은 의복에 관한 규제가 엄격한 나라의 선수들에게 문화를 개방할 목적으로 이번 올림픽부터 레깅스와 긴소매 유니폼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체조 '말형' 김지훈 철봉 8위

한국 체조의 '말형' 김지훈(28·서울시청)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철봉에서 8위를 차지했다.

김지훈은 7일(현지시각) 런던 노스그리니치 아레나에서 끝난 결선에서 15.133점을 받아 전체 8명의 선수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로써 한국 체조는 남자 도마에 출전한

양학선(20·한체대)이 수확한 금메달 1개로 대회를 마감했다.

예선 8위로 결선에 오른 김지훈은 가장 마지막에 출전했다. 김지훈은 공중 동작을 큰 실수로 잃었으나 착지 때 몇 걸음을 움직여 점수가 깎였다.

김지훈은 "금메달을 따러 런던에 온 건 아니지만 요령을 약간 바라면서 메달에 도전

했는데 실패했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런던에 오기 한달 전에 왼쪽 팔꿈치를 다쳐 기술훈련을 하지 못해 지난해 세계 선수권대회 때 나선 동작 그대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에프케 존더란트가 완벽에 가까운 동작을 펼치고 16.533점을 받아 금메달을 획득했다.

독일의 파비안 함비켄(16.400점)과 중국의 주카이(16.366점)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갔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해의 및 섬은 개제가 불가합니다. (육지만 가능)

8월 11일(토)

- ▲남도산사랑 8/11(토) 박정병, 장성봉, 과산 6시 북태마트월드드림점, 6시15분 시청주차장건너편, 6시30분 비엔날레주차장
- *다음카페: 남도산사랑 T. 010-4741-4433
- ▲광주희망토요산악회 내연산 정화계곡 / 12폭포, 8월11일(토), 영주체육관(06시), 광주역(06시15분), 비엔날레주차장(06시30분)
- *다음카페: 광주희망토요산악회 참조
- T.010 9602 3925, 010 7750 7210
- ▲광주도요산악회 산청, 용석봉과 레프팅 8월11일

8월 12일(일)

- ▲광주도이타산악회 진안 태대산 & 선각산 (계곡산행) 1142m 8월 12일(일) 배선동 도이타대장 7시 출발(5분 동아병원앞 10분 농성역1번출구 25분 농성산악이파트앞 35분 문예후문 40분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산행분담금: 25,000(목욕비별도) T. 010-3786-3120, 525-3120
-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코스) 목포대교, 고하동 경유, 7시3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코스) 목포대교, 고하동 경유, 7시3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 ▲(원)광주서석산악회 8월12일(일) 경남 현성산, 산행 및 수승대 유원지 관광, 유원현태산부인과 앞 06:30, 영주사거리 06:33, 화정동 대주A 앞 06:40, 백운동 로타리 06:50, 롯데백화점 앞 07:00, 동신고 앞 07:10, 문예회관 후문 07:25 T. 010. 4031. 4401
- 8월 18일(토)**
- ▲남도산사랑 8/18(토) 원익산, 육천 6시30분롯데마트월드드림점, 6시45분 시청주차장건너편, 7시 비엔날레주차장
- *다음카페: 남도산사랑 T. 010-4741-4433
- ▲광주금당 산악회 8월18일(토) 밀양 영남 알프스

산행안내

(토) 6시30분 영주체육관(광주역, 비엔날레 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도요산악회 참조 T. 010-3608-4267, 010-3642-2849

8월 12일(일)

- ▲광주도이타산악회 진안 태대산 & 선각산 (계곡산행) 1142m 8월 12일(일) 배선동 도이타대장 7시 출발(5분 동아병원앞 10분 농성역1번출구 25분 농성산악이파트앞 35분 문예후문 40분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산행분담금: 25,000(목욕비별도) T. 010-3786-3120, 525-3120
-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코스) 목포대교, 고하동 경유, 7시3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코스) 목포대교, 고하동 경유, 7시3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 ▲(원)광주서석산악회 8월12일(일) 경남 현성산, 산행 및 수승대 유원지 관광, 유원현태산부인과 앞 06:30, 영주사거리 06:33, 화정동 대주A 앞 06:40, 백운동 로타리 06:50, 롯데백화점 앞 07:00, 동신고 앞 07:10, 문예회관 후문 07:25 T. 010. 4031. 4401
- 8월 18일(토)**
- ▲남도산사랑 8/18(토) 원익산, 육천 6시30분롯데마트월드드림점, 6시45분 시청주차장건너편, 7시 비엔날레주차장
- *다음카페: 남도산사랑 T. 010-4741-4433
- ▲광주금당 산악회 8월18일(토) 밀양 영남 알프스

산행안내

(토) 6시30분 영주체육관(광주역, 비엔날레 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도요산악회 참조 T. 010-3608-4267, 010-3642-2849

8월 12일(일)

- ▲광주도이타산악회 진안 태대산 & 선각산 (계곡산행) 1142m 8월 12일(일) 배선동 도이타대장 7시 출발(5분 동아병원앞 10분 농성역1번출구 25분 농성산악이파트앞 35분 문예후문 40분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산행분담금: 25,000(목욕비별도) T. 010-3786-3120, 525-3120
-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코스) 목포대교, 고하동 경유, 7시3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코스) 목포대교, 고하동 경유, 7시3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 ▲(원)광주서석산악회 8월12일(일) 경남 현성산, 산행 및 수승대 유원지 관광, 유원현태산부인과 앞 06:30, 영주사거리 06:33, 화정동 대주A 앞 06:40, 백운동 로타리 06:50, 롯데백화점 앞 07:00, 동신고 앞 07:10, 문예회관 후문 07:25 T. 010. 4031. 4401
- 8월 18일(토)**
- ▲남도산사랑 8/18(토) 원익산, 육천 6시30분롯데마트월드드림점, 6시45분 시청주차장건너편, 7시 비엔날레주차장
- *다음카페: 남도산사랑 T. 010-4741-4433
- ▲광주금당 산악회 8월18일(토) 밀양 영남 알프스

산행안내

(토) 6시30분 영주체육관(광주역, 비엔날레 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도요산악회 참조 T. 010-3608-4267, 010-3642-2849

8월 12일(일)

- ▲광주도이타산악회 진안 태대산 & 선각산 (계곡산행) 1142m 8월 12일(일) 배선동 도이타대장 7시 출발(5분 동아병원앞 10분 농성역1번출구 25분 농성산악이파트앞 35분 문예후문 40분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산행분담금: 25,000(목욕비별도) T. 010-3786-3120, 525-3120
-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코스) 목포대교, 고하동 경유, 7시3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코스) 목포대교, 고하동 경유, 7시3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 ▲(원)광주서석산악회 8월12일(일) 경남 현성산, 산행 및 수승대 유원지 관광, 유원현태산부인과 앞 06:30, 영주사거리 06:33, 화정동 대주A 앞 06:40, 백운동 로타리 06:50, 롯데백화점 앞 07:00, 동신고 앞 07:10, 문예회관 후문 07:25 T. 010. 4031. 4401
- 8월 18일(토)**
- ▲남도산사랑 8/18(토) 원익산, 육천 6시30분롯데마트월드드림점, 6시45분 시청주차장건너편, 7시 비엔날레주차장
- *다음카페: 남도산사랑 T. 010-4741-4433
- ▲광주금당 산악회 8월18일(토) 밀양 영남 알프스

산행안내

(토) 6시30분 영주체육관(광주역, 비엔날레 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도요산악회 참조 T. 010-3608-4267, 010-3642-2849

8월 12일(일)

- ▲광주도이타산악회 진안 태대산 & 선각산 (계곡산행) 1142m 8월 12일(일) 배선동 도이타대장 7시 출발(5분 동아병원앞 10분 농성역1번출구 25분 농성산악이파트앞 35분 문예후문 40분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산행분담금: 25,000(목욕비별도) T. 010-3786-3120, 525-3120
-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코스) 목포대교, 고하동 경유, 7시3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코스) 목포대교, 고하동 경유, 7시3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 ▲(원)광주서석산악회 8월12일(일) 경남 현성산, 산행 및 수승대 유원지 관광, 유원현태산부인과 앞 06:30, 영주사거리 06:33, 화정동 대주A 앞 06:40, 백운동 로타리 06:50, 롯데백화점 앞 07:00, 동신고 앞 07:10, 문예회관 후문 07:25 T. 010. 4031. 4401
- 8월 18일(토)**
- ▲남도산사랑 8/18(토) 원익산, 육천 6시30분롯데마트월드드림점, 6시45분 시청주차장건너편, 7시 비엔날레주차장
- *다음카페: 남도산사랑 T. 010-4741-4433
- ▲광주금당 산악회 8월18일(토) 밀양 영남 알프스

산행안내

(토) 6시30분 영주체육관(광주역, 비엔날레 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도요산악회 참조 T. 010-3608-4267, 010-3642-2849

8월 12일(일)

- ▲광주도이타산악회 진안 태대산 & 선각산 (계곡산행) 1142m 8월 12일(일) 배선동 도이타대장 7시 출발(5분 동아병원앞 10분 농성역1번출구 25분 농성산악이파트앞 35분 문예후문 40분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산행분담금: 25,000(목욕비별도) T. 010-3786-3120, 525-3120
-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코스) 목포대교, 고하동 경유, 7시3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코스) 목포대교, 고하동 경유, 7시30분 영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 ▲(원)광주서석산악회 8월12일(일) 경남 현성산, 산행 및 수승대 유원지 관광, 유원현태산부인과 앞 06:30, 영주사거리 06:33, 화정동 대주A 앞 06:40, 백운동 로타리 06:50, 롯데백화점 앞 07:00, 동신고 앞 07:10, 문예회관 후문 07:25 T. 010. 4031. 4401
- 8월 18일(토)**
- ▲남도산사랑 8/18(토) 원익산, 육천 6시30분롯데마트월드드림점, 6시45분 시청주차장건너편, 7시 비엔날레주차장
- *다음카페: 남도산사랑 T. 010-4741-4433
- ▲광주금당 산악회 8월18일(토) 밀양 영남 알프스

ISO 9001, ISO 14001 품질인증

심사 및 컨설팅 전문

ICR 국제 품질인증원에서

귀사의 발전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전화 010-2932-9099

태극전사 경기 일정

<p>◇9일(한국시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시00분 리듬체조 개인 종합 예선 로테이션 순연재 ▲21시00분 레슬링 여자 자유형 55kg 급업지은 <p>◇10일(한국시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시00분 핸드볼 여자 준결승 대만 	<p>민국 vs 노르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시00분 태권도 여자 -67kg급 예선 황경선 ▲20시00분 리듬체조 개인종합 예선 로테이션 순연재 ▲21시00분 레슬링 남자 자유형 55kg 급 김진철
---	--

분할 합병 공고

(주)연계 및 체인지이(계속공고)

동광전력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현대콘크리트(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기 2012년 08월 08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원가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행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외의 일부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지 가 바람,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지 가 바람 또는 주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2년 08월 09일

"갑" 동광전력 주식회사
순천시 가곡동 997-11 대표이사 윤 철 속

"을" 주식회사 현대콘크리트
순천시 흥명동 신대리 368-1 대표이사 김 민 정

상속한정승인 공고

광주지정법원

사건번호: 2012-단1155
사 망 자: 김명수(640618-1641410)
최후주사: 광주시 동구 학동 637-46 3003동 109호(부영3아파트) 8층 802호

등락기준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길 10-4 위 땅 김명수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제외)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제외)에 대한 공고·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2년 08월 09일

공 고 인: 신순애, 김경민, 김민상
대표이사 윤 철 속

한정승인승인취임: 2012년 08월 02일
공고기간: 2012. 08. 09-2012. 10. 08
신 고 처: 신순애(010-4147-2645)

상속한정승인 공고

광주지정법원

사건번호: 2012-단893
사 망 자: 정성태(561021-1552210)
최후주사: 광주시 동구 학동 637-46 3003동 109호(부영3아파트) 8층 802호

등락기준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위 땅 정성태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제외)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제외)에 대한 공고·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2년 08월 09일

공 고 인: 정병희, 정병진, 정종태, 정진태, 정종남
한정승인승인취임: 2012년 08월 02일
공고기간: 2012. 08. 09-2012. 10. 08
신 고 처: 정병희(010-6632-4320)